

### 단거리기 16대 발주 全日空 대형점보대신에 關西신공항중심 국제선 위해

일본의 항공사 全日空(ANA)은 1일 사업초점을 아시아지역내의 단거리비행에 맞추기로 한 영업전략 변경에 따라 에어버스社와 보잉社에 16대의 비행기를 새로 주문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미 주문한 바 있는 장거리 여객기 보잉 747-400機 8대중 4대를 취소하고 대신 좀 작은 보잉사 항공기 6대와 단거리 여객기인 에어버스의 A321-100機 10대를 구입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좀 작은 보잉사 기종은 보잉 767-300機 3대와 보잉 777機 3대 등이며 취소된 것 외의 나머지인 747-400機 4대는 예정대로 인도될 것이라고 한다.

회사측은 2백석짜리 A321-100機의 첫 인도는 오는 98년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 기종은 국내선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ANA는 당초 오는 96년 인도가 시작될 예정이던 에어버스社의 장거리 여객기 A340-300機 5대의 인도시기도 최소한 2000년

으로 연장시켰다고 회사 대변인이 말했다.

이 조치의 영향을 받는 에어버스사의 주문량은 6억5천8백만달러어치다.

ANA의 대변인은 기종과 인도시기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보잉사와 에어버스사에 대한 전체 주문물량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 '컨' 장치장 주장

일반부두 극대화등  
기존시설에 한계  
수영비행장 활용안  
대두

부산항의 만성적인 컨테이너 화물 체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水營비행장을 부두밖 컨테이너장치장(ODCY)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부산발전연구원 朴彰鎬 선임연구원은 "고베港 마비사태에 대한 부산항에 대응전략"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한시적으로 水營비행장(전체 30만坪)의 일부 부지를 ODCY로 활용해 컨테이너 화물을 바지선으로 부산항~水營비행장간을 수송하자는 단기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朴연구원은 고베港 마비사태 이후 해운항만청이 대응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 일반부두활용 극대화 등 기존시설의 회전을 향상만으로는 실효성이 적다고 지적하고 水營비행장 부지를 ODCY로 활용할 경우 부두의 컨테이너 장치장에 폭주하는 물동량을 근원적으로 분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 화물을 水營비행장에서 도시고속도로로 바로 연결수송할 수 있어 도심교통체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 영·불 양사 업무합병 BAe와 ATR지역 항공에서

영국의 BAe사와 프랑스 및 이탈리아 합작사인 ATR사는 지역항공기 업무를 상호 합병하 것임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ATR사는 ATR42 및 ATR72로 50~70인승 시장을, Jetstream사는 Jetstream31 및 Jetstream41로 19~30인승 시장을 점유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70인승급의 Jetstream61과 ATR72의 중복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을 것이라고 한다.

## 항공영업 본격화

### 중항공사들, 지점·판매 대리점 개설

中國 항공사들이 우리나라에 지점 및 판매대리점 개설 등을 통해 항공영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94년말부터 심양-서울, 대련-서울간을 운항 개시한 中國北方航空公司는 최근 (주)미맥항공등 3개업체와 한국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 발권·예약업무를 본격화했으며 북경-서울과, 청도-서울 노선을 취항하기 시작한 中國國際航空公司도 1월 10일자로 서울 지점을 개설, 판매대리점 계약 등을 통해 본격적인 對韓 영업활동에 나섰다.

중국북방항공공사는 중국 심양에 전기·전자제품 합자회사를 운영하는 미맥산업의 출자회사인 (주)미맥항공을 비롯, 중국북경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산하의 중국북경국제商旅公司(BIE), 해림 등 3사와 한국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한국 내 발권 및 예약업무를 본격화했다.

## 베트남항공 업적호조 작년 총 167만명 外國人 70만명 수송

국영 베트남항공은 지난해 관광객과 사업가들의 베트남 방문이 급증하면서 여객수가 50% 이상 늘었는데 작년 한해 동안 실어나른 승객은 1백67만명으로 지난 93년의 1백12만명에 비해 54.5% 증가했으며 약 70만명은 베트남인보다 고가의 항공료를 지불한 외국인이었다고 한다.

국영 베트남항공은 국내선에서 민간항공사인 퍼시픽 에어라인이 지난해 생겨나 독점체제가 붕괴됐지만 이익은 작년 한해 2천7백14억동(2천1백만달러)을 기록했다.

베트남항공은 최근 낡은 舊소련제 항공기들을 퇴역시키고 좀더 현대화된 보잉, 에어버스, ATR 등의 기종을 도입하여 모두 27대로 이중 절반이상이 서방產이다.

## 김포공항 물류 개선 화물 入庫 7시간으로 단축

정부는 김포공항의 항공과물 물류개선을 위해 시설 및 운영을 대폭 개선, 상수기에 화물이 김포에 도착해 창고에 들어갈 때가

지 3~4일 걸리는 것을 연내에 7시간으로 단축시키기로 했다.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의 물류개선반과 건설교통부, 관세청, 한국공항공단 등은 18일 기획단에서 회의를 갖고 '김포공항 항공 화물 물류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 김포공항 화물청사 앞의 차양막을 늘리고 미국 항공사가 반납한 면적을 화물처리시설로 개조하는 한편 지원시설도 9월말까지 확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화물 통관제도, 보세화물 처리시스템, 화물처리 시설 등을 개선해 지난해의 경우 화물이 김포공항에 도착해 창고에 들어갈 때까지 3~4일 걸리던 것을 7시간으로 줄이고 화물출고에 소요되는 차량의 출입시간도 7~8시간에서 2시간 이내로 단축시킬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이와같이 개선되면 수입화물의 평균 김포 체류시간이 13~14일에서 7~8일로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 안전회의 개최 美, 조종사훈련 개선 계기점검 기준설정

美 항공산업 관계자들은 최근 워싱턴에서 항공안전회의를 열고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해 조종사들에 대한 훈련을 개선하고 항공

기 계기점점 기준을 설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번 항공안전 회의에는 연방 항공관리, 항공사, 항공기 제조업체, 조종사 협회, 노동조합의 1천여명 대표들이 참석, 2일동안 항공관련 신기술로부터 기상조건 등 광범위한 주제를 논의하고 안전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상업용 항공기 조종사들에 대한 항공기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조종 훈련 의무화 ▲조종사들에 대한 악천후대비 비행훈련 ▲연방항공국(FAA)내 기상관련 사무실 설치 ▲항공기 계길 보수, 점검 기준설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회의를 소집한 페데리코 페냐 교통장관은 항공여행이 아직은 고속도로 여행보다 30배나 더 안전하지만 지난해 7건의 대형 항공사고로 2백64명이 목숨을 잃었던 사실을 지적하고 올해는 무사고를 달성하자고 촉구했다.

## 직항로 개설 추진

### 서울-멜버른간에 아시아나항공 간부초청 설명회도

서울과 멜버른간 직항로가 개설될 전망이다.

한국관광공사 시드니 지사보고에 따르면 호주 빅토리아주 정부는 관광산업의 활성화 및 한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주수도인 멜버른과 서울간 직항로 개설 문제를 한국의 아시아나항공 등과 협의중에 있다.

빅토리아주는 아시아나항공이 올해안에 호주에 취항할 뜻을 밝히자 최근 아시아나항공 마케팅 부서 간부들을 초청, 멜버른과 빅토리아주의 관광자원 및 취항시 이점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빅토리아주는 또 조만간 한국-호주 항로를 신설할 것으로 알려진 호주의 안세트항공사와도 접촉, 서울-멜버른 항로를 개설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항공사는 경쟁이 치열한 기존항로의 취항보다는 새로운 항로를 개설할 것으로 보여 서울-멜버른 직항로 개설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호주간 직항로는 한국의 대한항공, 호주의 콰타스항공, 뉴질랜드의 에어뉴질랜드가 서울-시드니 주 11회, 서울-브리즈번 부 6회를 운행하고 있다.

호주관광청에 따르면 한국인 호주관광객은 90년 1만4천명을 기록한 이후 91년 2만3천, 92년 3만3천, 93년 6만2천, 94년 10만2천명(추정)으로 매년평균 60%씩 급증하고 있고 올해는 14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 영공개방 제의 美, 유럽 9개국에

美國은 항공여행 자유화를 위한 영공 개방을 스위스를 포함한 유럽 9개국에 제의했다고 스위스 민간항공 소식통들이 최근 밝혔다.

소식통들은 미국의 제의가 이미 미국과 네덜란드 사이에 체결된 것과 유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든 스위스 항공운수회사에 적용될 이같은 미국의 제의에 대해 스위스 항공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영공 개방 협정이 2~3개월내로 체결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미국의 영공 개방 제의를 받은 유럽국은 이밖에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등인 것으로 베른 소재 스위스 연방민간항공국의 한 소식통은 전했다.

스위스항공의 한 대변인은 미국 공항들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이같은 협정의 체결이 스위스 항공을 강화시켜줄 것이라면서 스위스 항공은 이같은 영공 개방 원칙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제의한 개방조치가 시행될 경우 스위스항공은 미국내 제휴선인 델타항공과의 공동 또는 단독으로 미국내 일부 새로운 기착지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